

特 輯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

—理想的인 目標—

張 一 世
韓國開發研究院 圖書室長

1. 序 論

모든 國家에 共通된 國立中央圖書館 機能은 있을 수 없다. 나라에 따라 實情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代表的인 文化的 殿堂으로서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도서관의 中心體 또는 集約體로서의 國立中央圖書館의 理想的인 機能을 提示할 수는 있다. 이 理想的인 機能을 各國의 사정에 따라 추가하거나 또는 수식하거나 부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各國 실정에 맞는 理想的인 機能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 특히 開發途上에 있는 國家 또는 低開發國家들로서 國立中央圖書館을 새로 발족시키거나 또는 既存한 中央圖書館의 機能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試圖로서 1958년에 심포지움을 가진 바 있다¹⁾.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구라파 각국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검토로 끝났다.

이 밖에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에 관한 것으로서는 1963년에 개최되었던 英國 Bangor에서의 英國圖書館協會 大學 및 研究分委의 國立中央圖書館에 관한 會議이다²⁾.

이 會議에서의 主題 發表者였던 Magnussen박사는 「國立圖書館의 機能과 計劃」이라는 論題로 발표가 있었는데 그는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으로서 다음의 일곱가지를 들고 있다. 즉,

- 1) 國家文獻의 수집
- 2) 外國文獻의 수집
- 3) 圖書博物館으로서의 奉仕
- 4) 일반 公衆으로 하여금 그 藏書에 대한 접근을 허용
- 5) 인포메이션 奉仕 및 書誌作成 活動의 수행
- 6) 司書訓練 센터로서의 機能

7) 國家圖書館計劃에 있어서의 參與³⁾

이상과 같이 일곱가지를 들고 이에 대한 理由를 기술하고 있다. 이 機能에 대한 토의에 참여한 옥스포드 大學 보틀레이 圖書館長인 Myres박사, 스코틀랜드 國立圖書館長 Beattie박사, 케임브리지大學 圖書館長 Ansell氏, 그리고 大英博物館圖書館 印刷圖書部 Wilson部長 등은 Magnussen박사가 發表한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에 대하여 대체로 전부 贊意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⁴⁾ 그와 같은 機能이 가장 代表的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다.

1960年代에는 國立中央圖書館 機能을 비교적 총정리하는 年代라 볼 수 있는데, 가장 有用한 論文으로서는 國際圖書館協會聯盟(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略稱: IFLA)의 國立 및 大學圖書館部會에 提出된 것이다.

이 論文은 버밍햄大學圖書館長이었던 K. W. Humphreys씨에 의하여 쓰여진 것으로서, 그가 그의 글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1964년에 열렸던 마닐라에서의 會議와 1965年 8月 헬싱키에서 열렸던 會議에서 얻은 자료를 첨가하여 IFLA에서 이 論文 出版의 허락을 얻어 출판한 것인데, 이 論文은 유네스코 블리틴에 게재된 것이다⁵⁾.

Humphreys씨는 그의 論文에서 國立中央圖書館은 한 나라에 1個館있는 것을 전제로 하였는데, 물론 國家에 따라서는 美國과 같이 議會圖書館 이외에도 國立醫學圖書館, 國立農業圖書館 등 몇몇의 國立圖書館을 가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國家의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나, Humphreys씨는 이 글의 目的인 開發途上에 있는 國家 및 低開發國家를 주로 대상으로 한 글이므로 1個館의 國立中央圖書館으로 가정하였다.

그는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을 記述하는데 있어서 세가지의 종류로 나누었다. 즉, 가장 基本的인 機能,

要望되는 機能 및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機能 등 세 종류이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이 論文이 IFLA에 提出되어, 그곳에서 가장 적합한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으로 인정받아 IFLA의 公式의인 見解로서 발표된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가장 信憑할 수 있는 「國立中央圖書館의 바람직한 機能」으로서 받아 들일 수 있다. 筆者는 이러한 見解에 따라 이 글을 이미 우리 나라에 翻譯하여 紹介한 바 있다.⁶⁾ 그러므로 여기에 그 內容을 간략하게 紹介하면서 各國의 국립중앙도서관 기능과 아울러 筆者의 見解도 피력 하고자 한다.

2. 國立中央圖書館의 基本的인 機能

1) 國家文獻의 蒐集

國家文獻의 蒐集은 가장 基本的인 目標이다. 국가에 따라 수집 종류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반드시 印刷된 文獻은 완전히 網羅되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최소 한도로 그 나라에서 出版된 모든 圖書 1冊씩과, 그 나라의 生活와 文化에 대한 것을 기술한 思想版 또는 모든 외국 출판물을 반드시 수집하여야 한다.

지금에 있어서는 國立中央圖書館이 있는 모든 國家에서는 國家文獻의 蒐集을 첫 機能으로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異論은 있을 수 없는 것이나, 特히 新生國家나 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는 자료 수집에 대하여 너무 좁은 見解는 가지지 말아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單行本의 수집이지만, 그 밖의 도서관자료, 즉 음반, 필름, 관화, 훈장, 주화, 녹음 테이프 등은 국가에 따라 수집 여부가 다르다.

美國이나 불란서 등에서는 필름이나 음반도 수집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구라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勳章이나 鑄貨도 保存대상이 되고 있다.

마이크로 자료로만 生産되는 圖書, 雜誌, 論文 등은 印刷本과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同一하게 保存되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된 자료로서 그 나라 이외의 국가 도서관에서 所藏하고 있는 單行本에 대한 複寫도 하여야 한다. 그리고 國內新聞 및 필요한 외국신문에 대한 마이크로필름 수록을 위한 國家的인 計劃도 수립하여야 한다.

納本되지 않는 出版物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圖書購入費가 반드시 配定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기적인 도서 구입비와 非定期的인 도서 구입비로 나누는데, 定期的인 것은 正常的인 구입비로 사용되며, 非定期的인 것은 個人的 또는 競賣 등을 통해 판매되는 것들을 사

들이기 위하여 쓰여진다. 國立中央圖書館은 항상 그러한 圖書를 購入할 수 있어야 하며,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國家의 중요한 文化財를 잃어버리는 중대한 損失을 招來케 될 것이다.

國家文獻의 利用에 있어서는 唯一本이거나 또는 稀觀本은 貸出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規制는 부분 및 最新出版物에도 制限이 가해져야 한다. 理論적으로는 國立中央圖書館 藏書는 公衆의 어느 누구에게나 提供되는 것이지만, 事實에 있어서는 圖書를 要求하는 모든 層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 같이 提供될 수는 없다.

2) 納本

納本은 著者の 權利를 保護하기 위하여 出版 檢閲제도의 유지 및 國立中央圖書館에서의 國家文獻保存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初期에 있어서의 納本 目的은 도서관의 자료를 풍부히 하기 위하여서였다. 가장 오래된 것은 1537년 12월 28日자로 공포된 몽펠리에르(Montpellier) 布告에 의하여 불란서의 모든 印刷者나 出版者는 블로아(Blois)에 있는 王室圖書館에 새로 出版된 도서 1冊식을 無償으로 納本토록 한 것이다.

스페인과 伊太利는 法的인 納本 이외에 納本과 더불어 著者の 權利에 대한 것이, 獨逸, 룩셈부르크, 스웨덴 및 몇몇 東歐羅巴 국가들은 圖書 한 책은 檢閲目的으로, 그리고 또 한 책은 法的인 納本을 위하여 납본토록 되어 있다.

納本하는 도서의 책수는 1책이 많으나 鈔本에서의 특수자료에 대한 41책 納本도 있으며, 理想的으로는 최소한도 3책은 있어야 하는데, 그 理由는 한책은 正常的인 利用, 또 한책은 도서관 相互貸借用, 그리고 또 한책은 保存用으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國立中央圖書館은 출판된 모든 出版物이나 또는 個人이 출판한 모든 出版物을 최소한도로 한책은 納本받아야 하며, 納本法으로 納本은 納本義務者(즉 印刷者 또는 出版者 그리고 個人出版物일 경우는 그 個人)가 직접 國立中央圖書館에 納付토록 規定하여야 하는데, 그 理由는 가장 빠른 時日內에 納本토록 하기 위하여서이다.

끝으로 強調하고 싶은 것은 모든 印刷된 出版物(圖書 雜誌 및 기타)이 빠짐 없이 國立中央圖書館에 納入되어야 한다는 점과 政府出版物이 無料로 역시 納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 外國文獻의 蒐集

1958년에 개최되었던 「國立中央圖書館에 관한 비엔나會議」에서는 國立中央圖書館의 外國文獻蒐集 역할에

대한 충분한 토의 끝에, 外國文獻蒐集에 대한 계획이 없는 國家에 있어서는 그러한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고 薦擧하였다⁷⁾. 그 뿐만 아니라 會議參席者들은 가능한한 풍부한 外國文獻을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토의로서 明白해졌다.

그러나 막대한 出版界에 달하는 外國文獻을 國立中央圖書館에서만 蒐集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므로 外國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文獻蒐集을 分野別 또는 地域別로 分擔하고 있다.

중요한 協力體制를 보면, 美國에 있어서는 파밍턴 계획(Farmington Plan), 스칸디나비아 계획과 獨逸研究機關聯合會의 도움으로 조직된 西部獨逸계획이 研究하기에는 적절한 계획들이다.

하여간 어떤 방법을 채택하든지간에 國立中央圖書館은 外國의 學術文獻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그 國家에 있어서의 도서관 자료 發展을 위한 모든 계획의 中心이 國立中央圖書館이어야 한다. 만일 이 蒐集計劃이 圖書館相互貸借制度和 分擔目錄計劃(Shared Cataloging Plan)과 서로 연결을 맺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國家 圖書館計劃을 위한 훌륭한 貢獻을 하게 될 것이다.

4) 國家書誌의 出版

國家書誌의 出版은 納本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國立中央圖書館에서 納本을 받는 경우에는 역시 그곳에서 國家書誌가 出版되어야 한다.

國家書誌는 納本 받은 자료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일반에게 알림으로써 그 자료가 곧 利用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納本된 후 지체없이 편찬, 발행되어야 한다. 理想的으로는 出版物의 發行日字 전에 納本을 받음으로써 納本된과 동시에 國家書誌가 발간되는 것이다.

대체로 國家書誌는 週刊으로 발행하며 週刊이 짜여서 季刊 또는 年間으로 출판한다.

國家書誌의 내용은 국가에 따라 비교적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불란서와 獨逸國家書誌는 단일言語로 된 모든 출판물만 수록하였고, 벨기에 國家書誌는 그 나라의 한 言語로 出版된 도서뿐만 아니라 著者나 主題에 대한 關心에 따라 外國出版物(그곳 國立中央圖書館에서 蒐集한)까지 포함하여 수록하고 있다. 또한 濠洲國家書誌는 圖書는 물론, 地圖, 設計圖, 彫刻, 版畫, 樂譜와 동시에 모든 印刷物이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國家書誌에 수록되어야 할 자료의 종류에 대한 것은 여러 國家가 어떤 會議에 이를 것으로 믿고 있다.

5) 國家書誌 情報센터

國立中央圖書館이 法的으로 納本을 받고 있고 또 國

家書誌를 발행한다면 그 나라에 있어서 어느 다른 도서관보다도 가장 풍부한 圖書館資料를 保存하는 도서관인 동시에 가장 풍부한 書誌情報를 소유하는 도서관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有能하고 많은 專門職司書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書誌센터로서의 奉仕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곳이다.

만일 前述한 바 있는 他圖書館과의 協力體制에 따라 主題別 또는 地域別로 자료의 蒐集을 分擔하고 있는 국가일지라도 國立中央圖書館은 그러한 協力圖書館들에게 特定主題 索引作成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出版까지도 장려하여야 하며, 國立中央圖書館은 그러한 기관들과 그들 기관의 특정 주제 分野에 관련된 情報를 항상 받아야 하며, 또 그들의 질문에 參考奉仕를 하면서 끊임없는 접촉을 유지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 기관에서 進行되고 있는 書誌調査, 作成 등에 관한 보고가 國家書誌센터에 보내져야 한다.

끝으로, 國立中央圖書館은 外國으로 부터의 書誌關係質問에 대한 中心이 되어야 한다. 國立中央圖書館은 다른 나라의 같은 기관과 많은 접촉이 있을 것이므로 그 國家에서 出版되는 모든 出版物에 관련된 질문을 취급할 責任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어떤 경우이든지간에 國際的인 業務의 延長이며, 다른 도서관은 이러한 責任을 수행할 수 있는 位置에 있지 않으며, 國立中央圖書館?직원에게는 좋은 경험과 그의 藏書를 더욱 풍부하게 해 주는 결과가 된다.

6) 藏書目錄의 出版

國立中央圖書館이 받는 納本에 대한 國家書誌作成 이외에, 이내 所藏하고 있는 藏書에 대한 目錄이 반드시 出版되어야 한다.

國家書誌 작성보다도 앞서서 이 藏書目錄이 먼저 出版되어야 한다. 이 장서목록은 그 나라의 다른 도서관에서의 參考사무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만일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국가에서 크고 또 중요한 도서관일 경우에는 그 藏書目錄은 실질적으로 國家書誌를 대신하게 되어 다른 國家에서도 有用한 目錄으로 쓰이게 된다.

이 藏書目錄은 學者들에 대한 더 없는 參考자료이므로, 그가 所藏한 印刷本, 筆寫本, 版畫 및 繪畫, 地圖 등에 대한 것까지도 目錄에 수록하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所藏한 定期刊行物 目錄은 물론, 그 나라가 所有한 定期刊行物에 대한 綜合目錄도 出版하여야 한다.

7) 展 示

國立中央圖書館이 所藏한 자료를 널리 알리는 가장 좋은 方法은 展示이다. 그러므로 國立中央圖書館은 가

능한 限 國內를 巡廻하면서 展示하여야 한다. 國立中央圖書館 업무에 관한 關心을 造成하기 위하여 영구적인 公共관계 담당 責任部署의 設립도 그 도서관의 기능과 그의 필요성을 理解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3. 國立中央圖書館의 要望되는 機能

1) 圖書館相互貸借

理想的인 納本 책수는 3 책이라고 앞에서 지적하고, 그 理由中의 하나는 相互貸借用이라 하였거니와, 많은 國家에서는 國立中央圖書館이 國內 및 國際間的 相互貸借本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만일 國立中央圖書館이 所藏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면 그 기관을 中心으로 한 相互貸借制度를 조직하는 것이 가장 理想的인 것인데, 그 理由는 그곳에 納本이 되므로 모든 國內 出版物이 保存되어 있고, 外國의 文獻도 가장 많이 所藏하게 되며, 가장 풍부한 參考圖書와 書誌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主題나 言語부문에 훈련된 전문직 司書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理由로 國家의 書誌情報센터로서 적합하고 또 같은 理由로 相互貸借을 위한 國家의 中心기관으로서 적합한 곳으로 주장되어 오고 있다.

2) 筆寫本

國家出版文獻의 중추적인 所藏장소인 國立圖書館은 필연적으로 많은 풍부한 筆寫本도 所藏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국립도서관은 國家의 가장 큰 筆寫本 및 文書센터이며, 따라서 國家의 필사본 및 文書에 관련된 활동에 대한 調整者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英國, 佛蘭西에서와 같이 國立中央圖書館에서 분리된 國立中央文書館으로서 歷史, 文學, 科學 및 그 國家의 文化生活面에 관련된 모든 記錄의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要望된다. 과거의 國家文書로서는 단지 歷史의인 것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文學의인 筆寫本, 科學에 관한 것은 다른 도서관에서 수집하거나 또는 관심밖이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國立中央圖書館이 반드시 그 國家의 모든 형태의 筆寫本에 대한 保存을 責任져야 할 것이다.

3) 圖書館技術에 관한 研究

國立中央圖書館은 國內의 다른 어떠한 도서관 보다도 모든 종류의 圖書館活動을 위한 센터로서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圖書館技術에 대한 研究, 開發을 위한 초점이기도 하다.

하여간 國立中央圖書館은 필요한 적절한 새로운 方法을 채택하고, 發展하고 있는 새로운 계획에 관한 趨

분한 情報를 수집함으로써 圖書館技術에 대한 研究에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이 重要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研究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資金이 活用될 수 있는 位置에 서게되어야 한다.

4) 專門職 훈련

Humphreys씨는 이 문제를 다음 項인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기능」속에 分類하고 있으면서는 “...이 훈련 관계가 도서관이 創始될 당시부터 國立中央圖書館이 담당하지 않으면 안될 대단히 요긴한 일이라는 점을 力說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계속하여서 “아마도 도서관 訓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國立中央圖書館일 것이다”라고 말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아 專門職의 訓練이 重要한, 그리고 바람직한 國立中央圖書館의 機能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訓練에 있어서 理論的인 訓練과 實際的인 訓練과는 확실히 區分되어야 하며, 우리는 주로 後者에 대한 것만을 여기서 고려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前者도 관련된다.

國立中央圖書館의 직원은 일반적으로 모든 學術的인 圖書館業務—예를 들면 書誌學者, 古文書學者, 科學者, 製本專門家, 目錄者 등등 專門家를 가지고 있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그의 分野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訓練받는 사람에게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이므로 學生들이 일을 하게 될 장소條件으로서 는 國立中央圖書館이 가장 훌륭한 藏書와 筆寫本 및 기타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장 좋은 곳이다. 또 國立中央圖書館은 그 國家에 있어서 利用者나 目錄이나 圖書의 技術 또는 기타 어떤 것에 관련된 것이든 之間에 가장 훌륭하고 또 가장 새로운 奉仕를 제공하는 도서관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量의 文獻을 취급하게 되고, 그 國家에서 가장 많은 專門職 司書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아마도 가장 조직화되어 있을 것이며, 國內外를 막론하고 가장 發展한 모든 최신의 圖書館技術과 접촉하고 있을 것이다.

司書教育을 위한 이러한 長點 때문에 國立中央圖書館은 그 國家에 있어서 專門職을 위한 큰 責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國立中央圖書館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方法을 發展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새로이 專門職으로 들어오는 젊은이들에게 알리고 理解시킴으로써 現在와 將來의 方向을 형성해 나아 가야 한다.

5) 國家的인 圖書館 計劃

지금까지 記述한 것은 어떤 國家에 있어서나 圖書館

制度의 어떠한 關點에서 보던지간에 國立中央圖書館이 情報 및 質問의 접수 및 相互利益을 위한 도서관 업무의 개발을 하는 中央기관이 되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國家가 中央集中 또는 地方分散制度의 어떤 것이든지 관계없이 어느 곳에 있어서나 같은 입장이다. 國立中央圖書館은 모든 도서관문제에 있어서 指導의인 도서관 構성을 하여야 한다.

國立中央圖書館은 또한 그 나라의 도서관 업무에 대한 조직적인 計劃에 있어서 中心的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圖書館 相互貸借에 관한 문제, 새로운 大學에서의 도서관 발전에 대한 문제, 公共圖書館 奉仕의 問題 등등에 대하여 助言하고 諮問하여야 한다. 國立中央圖書館은 가장 작은 도서관으로 부터 가장 큰 도서관, 가장 풍부한 도서관, 가장 빈약한 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階로 組織되어 있는 것에 奉仕를 위한 하나의 系統있는 體系로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그 國家의 圖書館制度를 全體의인 面에서 그리고 이 制度와 國立中央圖書館의 關係를 한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國立中央圖書館 機能으로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圖書館奉仕 機能

1) 國際交換業務

國際交換 업무를 國立中央圖書館 한곳에 集中하여야 하나나 하는 문제는 많은 論難이 있다.

國際交換에 있어서 供給되는 자료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그 하나는 公刊行物이고 다른 하나는 大學이나 研究기관에서 나오는 자료이다.

公刊行物은 그 밖의 出版物과는 區別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國家의 代表기관인 國立中央圖書館 相互間의 交換에 의하여 保障이 受領되어야 한다. 政府出版物의 이러한 國家間 交換은 상호간에 無償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慣例이며, 서로가 이로 인하여 막대한 도움을 받게 된다.

大學이나 研究기관 出版物은 상호 關係성을 가진 大學 또는 研究기관 상호간에서 交換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固하여 國立中央圖書館이 그 중간에 介입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國立中央圖書館이 아닌 交換센터를 設치하여 자기 國內의 도서관에서 要求되지 않는 複本目錄의 發行, 다른 國家에서 보내오는 目錄의 수집과 分配 및 전국적인 協約을 맺지 않은 기관의 자료목록의 他國家

의 發行 등 機能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複本の 配布

어떤 도서관 직원들은 이 업무가 國家의 도서관 조직 關係로 國立中央圖書館이 하여야 할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도서관의 正常的인 機能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종류의 업무를 담당할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國立中央圖書館이 이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라는 하다. 확실히 中央에 조직된 교환기구에 관련되어야 할 기능이다.

5. 結 言

지금까지 記述한 것은 하나의 理想論이다. 우리들 현실로 볼 때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否認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理想이 없는 世界에 산다는 것이 아무런 生의 보람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前進과 發展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런 뜻에서, 비록 理想的인 目標에 도달하기는 어려울지라도 理想的인 것에 도달하려는 努力과 意志를 가진다면 우리 人間社會는 前進과 發展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人類의 歷史가 證明하고 있다. 올바른 機能을 발휘할 수 있는 眞正한 國立圖書館이 우리 나라에도 하루 속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參考文獻〉

- 1) Symposium on National Libraries in Europe, Vienna, Sept. 8—27, 1958. National Libraries; Their Problems Prospects. Paris, Unesco, 1960.
- 2) The (British) Library Association. University & Research Section Conference, Bangor, April 1963. National Libraries: Proceedings. London, 1963. 56p.
- 3) Ibid., p.11.
※ 筆者註: Ib Magnussen 博士는 Denmark의 Arhus에 所在한 State and University Library 館長임.
- 4) Ibid., pp26~40.
- 5) Humphreys, K.W. "National Library Functions."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1966. 5~8月號
- 6) Humphreys, K.W.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張一世 譯, 도서관, R.24 No1—2. 1969, 1—2月.
- 7) Symposium on National Libraries in Europe, Vienna, Sept. 8—27, 1958. Ibid.